

### 113. 트리클로로에틸렌 세척작업에게 발생한 독성간염, 박탈성피부염

성별	남	나이	41세	직종	세척 작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임OO은 2002년 8월에 스테인레스 강판을 작게 절단하여 세척하여 납품하는 금속 가공업체에 입사하여 1개월 간 혼자서 세척작업을 하였다. 2002년 9월 열을 동반한 기침과 온 몸이 붓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 S종합병원에서 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으로 입원 치료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증상의 악화로 재입원 하였으나 증상의 급속한 악화로 2002년 10월 17일 괴사성 폐렴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민감성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임OO은 2002년 8월 9일부터 2002년 9월 6일까지 약 1개월 간 근무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작업을 하였다. 세척업무는 절단된 스테인레스 강판을 세척기 속에 넣었다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꺼내는 작업으로 보호구 없이 맨손으로 세척기 통속에 강판을 넣었다. 세척기에는 냉각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배기장치도 없었다. 세척시간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때는 새것을 사용하면 1분, 사용했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5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5회 정도 실시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임OO은 2002년 9월 3일부터 식욕부진이 나타났고, 다음날 오한을 동반한 작은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양쪽어깨부터 손등에서 시작하여 전신으로 퍼지고 고열이 동반되었다. 9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부가 벗겨지고 지속적인 열이 동반된 복부와 전신부종으로 S병원으로 전원 되어 독성간염 및 박탈성 피부염으로 진단되어 부신피질호르몬 투여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2002년 10월 17일 사망하였다.

4. **결론:** 임OO은

- ① 세척작업 중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으며,
- ②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다형홍반,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국내외 사례보고도 있으며,
- ③ 임OO는 위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임OO의 다형홍반 및 스티븐존슨 증후군은 작업 중 노출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